

새해 첫 일정 '지역경제 살리기'

전주시, 탄소·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방문 새해 첫 공식일정 시작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탄소와 전자부품, 반도체,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업무에 들어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사무실을 대신해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 방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2019년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전자IT분야 전문연구생산기관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된 전북지역본부에는 현재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이날 전자부품연구원 내 20개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드론, SW개발 등 첨단기술분야 연구개발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듣고 제품개발과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VCSEL(전기신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사무실을 대신해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2019년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일종)제품 제작업체인 (주)옵토웍스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올해 전주경제 활성화에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억원의 기금을 편성, 총 150억 규모로 창업자금 및 운용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며,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시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

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해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시설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2019년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 6000만원,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다. 전주시는 기술

과 제품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규모는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이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며 "희망찬 새해를 여는 오늘 만난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땀과 열정을 마음으로 새기고, 올 한해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전자부품연구원 방문에 앞서 군경모지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추모했다. /송효철 기자

'경찰개혁 성과 창출의 해'

전북경찰청 시무식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2일 전북청 1층 대강당에서 강인철 청장과 전북경찰 지휘부를 비롯해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 행사는 신년 영상시청, 경찰청장 신년사, 경찰가 제창, 직원들과의 신년약수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철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체복입은 시민상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정신은 올해도 이어져야 한다."며, "2019년을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 성과창출의 해'로 만들



지"고 했다.

한편, 강 청장과 지휘부는 전주 낙수정 군경모지를 찾아 참배했다.

/강석훈 기자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경찰조사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마커그룹 직원 양 모씨(33)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상습폭행, 상습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송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018년 11월 8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모씨는 송 대표로

부터 "정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지겠다." 등 수십 차례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모씨는 이 같은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송 대표는 "양씨가 배임·횡령을 저질렀다. 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양씨를 무고·배임·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기자

자전거 흠치다 멀미

길가에 놓인 자전거를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88)는 지난 12월 12일 오후 4시 30분 경 전주시 완산구 한 상가 입구에 세워놓은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일 오전 10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선글라스 훔친 피의자 검거

선글라스를 놓고 간 사이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71)는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 28분 경 익산시 B로 현금저금기(ATM) 위에 놓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절취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생활자전거 활성화 안전모 착용 필수

전주시, 자전거 사고 실태조사·안전지킴이 활동 전개 사고예방 스티커 배부·무단 방치 자전거 23대 수거 등

전주시가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안전모 착용 등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횡단과 역주행 등 위험한 행동이 많고, 대다수의 자전거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비 4900만원(실태조사 인건비 2900만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주간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채용해 △중합경계장 사거리 △가련광장 △팔달로 행정고시학원 △농생명고양 △사잔다리 부근 등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 5개소를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운

전 캠페인 등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사고위험 조사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자면 시간당 평균 △차로 무단횡단 3.13건 △횡단보도 무단횡단 8.2건 △차로 역주행 0.76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자전거 타는 시민 중 안전모 착용자는 시간당 평균 24명중 1.43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야간 사고예방 반사 스티커 1,000매를 부차·배부하고, 사고위험에 노출된 무단횡단 자전거 이용자와 안전모 미착용자에게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활동을 했다. 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도 23대를 수거했다. /송효철 기자

이와 함께, 교통안전개선공사를 통해 경용도로상 보행자와 자전거를 구분하기 위해 노면표지 71개소를 설치했으며,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30개소와 자전거횡단도 15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물론, 자전거 통행시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과 자전거 안전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변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 생태교통의 중심인 자전거 활성화에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시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자전거 안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기초질서 지키기와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보강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보건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2월 27일까지 2018년도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16곳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강·음주예방·영양·운동·흡연예방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보건소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 치아 세균 내 눈으로 확인해 봐요 체험하고, 칫솔과 치약 등 구강위생용품 제공 후 칫솔질 교육을 통해 스

스로 올바른 구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음주·흡연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지침 및 식품구성 △자전거를 활용한 영양교육 △음주의 위험성과 인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음주거절방법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체조 및 스트레칭 △담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 △금연선서 △간접흡연바로알기 등이다.

송준상 보건소장은 "이번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구강, 음주·흡연 예방, 운동, 영양(비만)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